



Russia · 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글로벌 탈(脫)탄소화 전환기조,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은?

한은영

박사과정, 러시아 · CIS 경제 전공

hey131@naver.com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무섭게 상승했다. 2021년 초 배럴당 40달러였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올랐으며,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약 150유로까지 치솟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천연가스를 전기생산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유럽국가들의 전기 및 가스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이는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세계 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수요가 높아진 것과 더불어, 글로벌 '탈(脫)탄소화'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출처: AA(2021), <https://www.aa.com.tr/en/economy/oil-prices-up-on-strong-economic-outlook-stock-draw/2200695>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탈탄소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균형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탈(脫)탄소화' 정책의 가속화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등시킨 주요 요인이다. 일찍이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하고도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EU와 영국은 각각 전체 발전량의 약 16%와 27%를 풍력에 의존한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북해 바람이 충분히 불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날씨 변화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말하자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은 현재 기술적 한계와 낮은 투자 규모로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화석연료 중 탄소배출 계수가 가장 적은 천연가스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산업부문 저탄소화 경로에 따라 석탄채굴 축소 및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석유·가스 부문에 신규 투자를 늦추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에너지 수요 증가대비 공급 증가량 부족으로 이어져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된 것이다.

러시아 경제회생에 기여하는 'Greenflation'

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원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소위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화석연료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는 환경우선적 정책 기조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러시아 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이 '그린플레이션' 현상은 전통적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에게는 한시적 호재로 다가온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은 결과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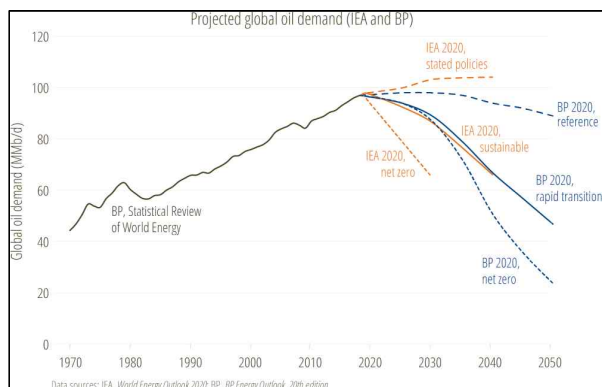
로 러시아 경제회복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원유수요 급감과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팬데믹 상황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여파는 지난 몇 년간 저유가 기조와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러시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켰고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재정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 경제 구조상 국제유가가 경제회생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일 치솟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수출증대는 러시아 경제회복에 탄력을 제공했고, 이를 발판으로 러시아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탈탄소화 추세의 'Paradox'

또한,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에너지 대란은 아직 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미국의 세일혁명으로 에너지 강국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전망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규제정책은 세일오일·가스의 개발 및 증산 규모에 제한을 가했고, 그 결과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유럽 전력생산의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와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인해, 올 겨울 철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대란은 러·독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의 가동 승인을 앞당기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peak demand에 적극 대응해야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린경제’로의 이행에서 나타난 일시적 호재일 뿐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위한 정책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조가 석유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피크 디맨드(peak demand)’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탄소배출량 4위인 러시아가 이런 국제 사회의 ‘탈(脫)탄소화’ 기조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은 결국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속도를 촉진시켜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린에너지 시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 및 산업구조 재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The Pembina Institute(2021), <https://www.pembina.org/blog/drilling-down-oil-demand>

글로벌 석유수요 전망 (IEA 및 BP)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발행인 ■ 홍완석 편집인 ■ 김민식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acs@hufs.ac.kr TEL ■ 02-2173-2556